

국어사전의 오류에 대해서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의 국어사전
3. 국어사전의 오류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시중에 나온 국어사전의 오류에 대해서 몇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특히 글쓰기 관련 수업을 할 때마다 적당한 국어사전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마땅히 추천할 만한 국어사전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동안 정리했던 것을 몇 개 추려서 글로 만들었다. 글쓰기 관련 수업을 할 때마다, 가능한 한 국어사전을 많이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그런데 일반 독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국어사전들은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 이외로 많다. 더욱이 글쓰기 관련 교재에서도 바른 어휘나 단어를 골라 쓰고, 띄어쓰기에 유의하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교과서 내용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많이 눈에 띄어 학생들에게 불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면목이 없을 때가 많다.

그렇지 않아도 국어교육을 소홀히 하고 국어생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해야 할 국어사전이 오류를 범하면 국어생활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은 뻔한 이치이다.

이 글은 앞으로 국어사전을 만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리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국어사전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대사전 성격의 것들만 예로 들기로 한다.

2.1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 초판, 1940 수정증보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근대 국어사전은 문세영(文世榮)에서 출발하였다. 문세영은 이윤재(李允宰)·한징(韓澄) 등의 도움으로 사전을 편찬하여 1938년 조선어사전간행회의 『朝鮮語辭典』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한글맞춤법통일안>으로 표기된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책머리에 지은이 말과 일러두기가 있으며, 이어 본문이 있고 책 끝에 한문 글자 음 찾기와 이두(吏讀) 찾기 등이 있다. 수록어휘는 10여 만 단어로 현대사전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있다. 장음 표시는 해당 음절 왼쪽에 쌍점(:)으로 표시하고 제2음절 이하에서 단음화했을 경우에도 그것이 원래 장음이면 그대로 표시하였다. 외래어 표기는 사안(私案)인 듯한 표기가 가끔 있다. 품사는 명사·대명사·자동사·타동사·지정사·접속사·부사·형용사·감탄사·조사의 9품사로 분류하고, 수사는 명사에, 관형사는 접두사에 포함시켰다. 어휘에는 순수국어·한자어·외래어·옛말·이두·방언·속담·성구(成句) 및 일부 고유명사들이 포함되었다. 발음의 표시는 대체로 표기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첫판은 A5판, 1,689쪽 분량이었으나, 1940년 12월에 약 1만 단어를 추가하고 일부 주석을 보완하여, 총 1,854쪽의 수정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광복 후에도 문세영의 이름으로 『修訂增補 朝鮮語辭典』이라고 하여 다시 나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사적 의의가 컸던 사전이다. 더욱이 이두까지 포함시킨 언어사전이기는 하나 대표적인 고유명사까지 표제어로 올려 백과사전의 성격이 가미되었다. 접두사를 주요 표제항으로 삼고 그에 의한 파생어들을 부표제항으로 삼았으며, '-아/어'와 '-ㄴ/은'에 의한 활용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전은 1953년에 삼문사에서 『가나다 사전: 표준』(1953, 삼문사) 또는 『우리말사전』(1953, 삼문사), 『國語大辭典』(1954, 영창서관), 『표준국어사전』(장문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출간되기도 했다.

2.2 이운재·김병제 편 의 『표준조선말사전』(1947, 아문각), 이운재 편 의 『표준 한글 사전』(1952, 대동문화사)

1933년 겨울부터 이운재(李允宰)가 편찬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사전 원고를 그의 제자이자 사위인 김병제(金炳濟)가 광복 후에 수정·증보한 『표준조선말사전』을 1947년 아문각을 통하여 출간하였다. 이후 1952년 대동문화사에서 이운재 편 의 『표준 한글 사전』을 출판하였다. 일상어로서의 현대 고유어·한자어, 그리고 널리 쓰이는 외래어와 방언을 표제항으로 삼되 고어·이두어 등은 아예 실지 않았고, 전문어·고유명사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어 언어사전에 가깝게 되었다. 이 사전은 문세영의 사전과 함께 광복 이후에 가장 널리 이용되었는데, 남북 분단 이후에는 남에서는 주로 문세영의 사전이, 그리고 북에서는 이운재·김병제의 것이 많이 이용되었다. 908쪽.

2.3 한글학회의 『큰 사전』(1947~1957) ⇒ 『중사전』(1958) ⇒ 『새한글사전』(1966) ⇒ 『우리말 큰사전』(1991, 어문각)

『큰 사전』은 한글학회(구 조선어학회)에서 엮은 첫 국어사전이다. 고유

어·한자어·외래어·관용어·사투리·변말(은어)·결말을 비롯하여 고유 명사·전문어·제도어·고어·이두 등 총 16만 4,125 어휘를 수록하였다.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이듬해 1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후 작업을 계속하여, 1950년 6월까지 3권을 발행하였다.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개정안>(한글학회, 1946)에 따랐다. 1956년에 다시 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1957년 10월 9일에 6권 모두를 간행하였다. 표제어의 수록은 '가, 까, 거, 꺼, ……'의 차례에 따랐다. 비표준어와 버려야 할 말에 (표를 하고, 특수한 음소 변동 부분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주석과 용례 및 관계어를 들어 문맥과 어휘구조를 밝히려고 하였다. 6권 1책. 연할자본. B5판. 3,840쪽.

『큰 사전』의 영향으로 이의 축소판 또는 실용판이라 할 수 있는 『중사전』(1958, 한글학회), 『새한글사전』(1967, 정양사·홍자출판사)도 이어서 출간되었다.

그 후 『큰 사전』의 수정증보판의 성격을 지닌 『우리말 큰사전』(전4권)이 1991년 어문각을 통해서 출간되었다. 이 사전은 한글학회가 편찬한 가장 큰 규모의 국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총 어휘 45만, 크기 4×6배판, 5,700여 면의 규모로 제1~3권에 현대말을 싣고, 제4권에 옛말과 이두를 싣었다.(나중에는 단권 또는 두 권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전체 올림말(표제어) 구성은 형태상 낱말, 속어, 마디말, 어간과 어근, 접사, 어미 등으로 이루어졌고, 어휘성격상 일반어와 전문학술용어를 망라하였다. 국어사전의 면모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국어사전에서 다루어온 사람이름·땅이름 등의 백과사전적인 항목은 줄이고, 한글의 기본어휘와 잊혀져 가는 전국 곳곳의 방언, 각종 문예작품 속의 어휘들을 모아 풀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족언어의 통일을 내다보면서 분단 이후의 북한지역의 어휘도 많이 다루었다. 각 올림말은 형태분석·발음·품사·뜻풀이·보기글·참고어휘·어원 등을 밝히는 체제로 엮여졌다. 즉 한글의 역사성과 현실성, 그리고 규범성의 바탕 위에서 새로 편찬한 사전이다. 『우리말 큰

사전』은 CD로 제작하여 컴퓨터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4 국어국문학회의 『국어새사전』(1958, 동아출판사)

국어국문학회에서 1952년부터 조사한 어휘 15만 여를 수록했다.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개정안>(한글학회, 1946)에 따라 일상생활에 쓰이는 일반어, 고어, 학술 전문어, 외래어 등은 물론 신어, 시사어, 속담 등을 망라하여 실었다. 인명·서명·지명은 따로 모으고, 신화, 전설, 경전 등에 나오는 인명은 일반 어휘와 함께 실었다. 사륙배판의 3단 조판 1,000여 면.

2.5 申瑜澈·申瑤澈의 『표준국어사전』(1958, 을유문화사) ⇒ 『표준국어사전』(수정증보, 1960) ⇒ 『새 우리말 큰사전』(1975, 서울신문사) ⇒ 『새 우리말 큰사전』(1983, 수정·증보판, 삼성출판사).

이 사전은 신기철·신용철 형제가 1948년부터 원고를 작성하던 중 6·25를 겪으면서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10년만인 1958년에 20만 여 어휘를 정리하고 사륙배판 1,700면으로 만든 것이다. 조운제·양주동·이승녕의 감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순 우리말과 한자 말을 중심으로 하여 학술 전문어·특수어·외래어·시사어·옛말·새말, 인명·지명·서명 등 고유명사까지도 포함시켰다. 초판을 내고 2년 뒤에 수정증보판을 냈다.

1975년에 『큰 사전』, 『국어 대사전』(이회승), 『고어 사전』 등을 참고하여 31만 여 어휘를 정리하고, 『새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다. 특히 이 사전은 백과사전적인 성격과 국어 사전적인 성격을 아울러 갖추려고 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였다. 이 사전은 1983년에 수정·증보판이 발간되었다.

2.6 홍용선·김민수의 《새사전》(1959,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292쪽)

2.7 이회승의 『국어대사전』(1961, 민중서관) ⇒ 수정·증보판(2판) 『국어대사전』(1982, 민중서림) ⇒ 3판 『국어대사전』(1994, 민중서림) ⇒ 3판 수정판 『국어대사전』(1998, 민중서림)

이 사전은 편자가 1954년 5월부터 6년여의 각고 끝에 완성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두와 고어는 물론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낱말과 방언, 속어 및 각종 전문어 등을 망라하여 총 3,400여 면의 단권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사전의 총 어휘 수는 42만여 개에 이르렀다. 이 사전은 나오고 난 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전이 되었음은 물론 출판계와 독자들의 대환영 속에 판을 거듭하였다. 방대한 양의 어휘를 수록하다 보니 백과사전적인 기능을 갖춘 국어사전이라는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중간에 판권이 민중서림으로 넘어가, 1982년에 사륙배판의 4,400여 면의 수정·증보판이 나왔다. 그 후 편자가 서거했을 뿐 아니라 어문규정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3판이 1994년에 나왔고, 이 3판을 수정한 것이 1998년 다시 출간되었다.

2.8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금성출판사)

이 사전은 총 40여 만에 이르는 방대한 어휘를 수록했다. 김민수, 고영근, 이승재, 임홍빈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분단 이후 이질화된 3,000여의 북한 어휘를 수록하였고, 국어사전 최초로 어원(語源)을 표시함은 물론 시대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뜻풀이를 시도하였다. 한국 근·현대 문학 작품에서 수집한 예문을 풍부히 수록하고, 약 5,700점의 삽화와 48쪽의 별채 원색 도판, 특히 사물의 세부 명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삽화를 대폭 수록하였다. 뒷면에 외래어 표기 용례와 활용육편 등을 실었다. 처음에는 단권으로 간행되었으나, 나중에는 변형국배판, 4,184쪽의 2권으로 간행되었다.

2.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연세 한국어사전』(200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연세 한국어사전』은 대사전 편찬이라는 원대한 작업의 중간 단계로 발간된 것으로, 1986년부터 13여 년이라는 긴 기간과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뭉치라는 현대 사전편찬학의 첨단 개념이 응용되었다. 5만 2천여 표제어를 단권, 2,144쪽 분량으로 간행하였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어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해 CD로 제작하여 보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2.10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1988년 국어연구소에서 새로운 어문 규정이 공포되고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민의 국어생활 향상을 꾀하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식 발족하면서 1992년에 새로운 국어사전의 편찬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9년 10월 9일에 드디어 『표준국어대사전』이 모두 3권 7,308면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 사전 성격 역시 확장형 사전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과거의 사전에 비해 다양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특히 표제항에 대응되는 최초의 문헌상의 어형을 제시한다든가 대응되는 북한어를 제시한다든가 또 표제어의 문법적 기능이나 유형을 고려하여 좀더 풍부한 예문과 함께 서술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해 CD로 제작하여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였다.

2.11 남영신의 『훈+ 국어대사전』(2001, 성안당)

이 사전은 필자의 『훈+ 국어사전』의 개정판 성격의 것으로, 다른 사전보다 어원을 자세히 밝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한자어에는 한자 새김을 일일이 실었다. 문학적 용례, 어문정보, 국문학 해설, 생활 상식 등도 함께 실었고, 국어의 역사와 문법 해설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2004년 현재 개정2판이 나와 있다.

2.12 기타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기타 사전은 다음과 같다.

남영신(1994), 『새로운 우리말분류대사전』, 성안당.

두산동아(2003), 『동아 새국어사전』(제4판)

민중서관(2001),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림편집국(1974 초판; 1999년 제4판),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박용수(2002), 『새로 다듬은 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어사전편찬회(1991), 『최신 개정 삼성판 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2.13 북한의 국어사전

李允宰·金炳濟의 『표준조선말사전』(1947)

『조선어 소사전』(1956)

『조선말 사전』(전 6권: 1960~1962) : 과학원의 언어문화연구소 사전 연구실의 '사전 편찬 집단'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한글학회의 『큰 사전』에 비길 만큼 그 이후의 북한 국어사전 편찬에 바탕이 되었다. 전 6권의 총 어휘 수는 18만 7,000여 개이다.

『현대조선말사전』(1968) ⇒ 2판 『현대조선말사전』(198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판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정순기(책임 편찬)·최완호·한정직·리기원·고신숙·김광익·김성근·강진철·문영호·방린봉·전혜정·한구화'에 의하여 공동으로 편찬되었다. 2판의 어휘 수는 13만여 개인데, 이 당시의 이희승 『국어대사전』(초판, 42만 여 어휘)과 비교했을 때, 5만여 어휘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어휘 대부분은 어휘 정리 사업과 문화어운동의 산물이라고 한다.

『조선문화어사전』(1973)

『우리말사전』(학생용, 1977)

『조선말대사전』(1992)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사전편찬 집단이 내놓은 사전으로, 33만여 어휘를 권1·2에 수록하였다. 이 사전의 맞춤법

은 1988년 2월 16일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발행한 『조선말규범집』을 따랐다.

3. 국어사전의 오류

3.1 띄어쓰기에 관련되는 것

오늘날의 국어생활에서 띄어쓰기는 꼭 필요한 것인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띄어 써야 할지 붙여 써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더욱이 어떤 출판물을 보더라도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만큼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국어의 띄어쓰기다.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은 '제1장 총칙'의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6장 띄어쓰기' 규정의 '제41항'에서 '제50항'까지 10개항의 구체적인 규정과 예외 규정, 허용 규정 등을 두고 있는 데서 큰 혼란 및 혼동을 일으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글로 쓰는 원칙이나 규정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나 규정을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된다. 이렇게 찾아보는 국어사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욱이 글쓰기를 안내하는 책에서조차 이런 원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출판물에서 띄어쓰기 잘못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찾아보는 국어사전이 잘못 되었거나 글쓰기 관련 교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문제가 커진다. 이들도 출판물에 속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인쇄 잘못과 교정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단순한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중 외래어 ‘팀(team)’의 설명이다.

①

팀¹(team) ㉠ ①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동아리의 사람. ㉡국가 대표 팀/같은 팀에 속하다/팀을 이루다/출전한 5개 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우리 연구소에서는 팀장 한 명과 팀원 여섯 명이 한 팀을 이룬다./발돋움을 하고 서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내게로 들것을 어깨 위에 멘 미군 구명조 일 개 팀이 다가왔다. <<조해일, 아메리카>> ㉢[운]운동 경기의 단체. 곧 두 조로 나누어 행하는 경기의 한 조를 이룬다. ‘편’, ‘조’로 순화. ㉣친선 시합이 무려 수십 회나 치러져 나가는 동안 두 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나가고 있었다.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이 설명을 보면, 외래어 ‘팀’은 ‘혼성팀(混成-)’, ‘팀워크(teamwork)’, ‘팀 파울(team foul)’³⁾ 등과 같이 합성어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앞말이나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므로 ‘대표팀, 우승팀, 한국팀’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대표 팀, 우승 팀, 한국 팀’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문에서 ‘팀’을 띄어 쓰고 있다.

②

재학생 팀과 오비 팀과의 친선 경기.(『동아 새국어사전』의 ‘오비’ 항목 설명에서)

대표 팀 주장.(『동아 새국어사전』의 ‘주장’ 항목 설명에서)

우리 나라 팀 대 외국 팀의 축구 경기.(『동아 새국어사전』의 ‘대’ 항목 설명에서)

3) 외국어 team foul을 외래어 ‘팀 파울’로 쓸 때, 한글맞춤법에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전문어나 고유명사는 ‘~’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팀 파울)도 있고, 그냥 두 단어로 표시한 사전(『동아 새국어사전』: 팀 파울)도 있다.

8회째부터 상대 팀에게 자유투를 주게 됨.(『동아 새국어사전』의 ‘팀과울’ 항목 설명에서)

우리 둘이 짝하면 최강 팀이 될 것이다.(『동아 새국어사전』의 ‘짝하다’ 항목 설명에서)

우리 팀에서는 그가 콧김이 센 편이다.(『동아 새국어사전』의 ‘콧김’ 항목 설명에서)

대표 팀을 신인 선수들로 보강하다.(『동아 새국어사전』의 ‘보강’ 항목 설명에서)

그런데 다음과 같이 붙여 쓰는 오류를 보인 국어사전류도 있다. 다음은 『동아 국어대사전』의 한 예문인데, 위에서와 같이 대부분 ‘대표 팀’과 같이 띄어 쓴 예문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붙여 쓴 예문을 제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글쓰기 시간에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수업을 하다가 이러한 것을 발견하거나 확인할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인쇄상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③ 대표팀 포워드 진용은 화려하다.(『동아 새국어사전』의 ‘포워드’ 항목 설명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유명 출판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은 물론 심지어 국어국문학회에서 감수했다고 하는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에서도 ‘농구팀/축구팀’과 같이 붙여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음은 글쓰기 관련 교재인 『글쓰기의 기초』(윤용식 외 5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의 잘못된 예문이다.

④

프랑스 대표팀은 이번 친선 경기에서 월드컵 우승팀다운 면모를 발휘하였다.(7쪽)

이번 대표팀은 문전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13쪽)

예문 ④에서도 ‘대표팀, 우승팀’과 같이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3.2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에 관련되는 것

<한글 맞춤법>의 합성어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규정은 ‘제4절’과 ‘제30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이견(異見)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글학회의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장미과[장미과], 서무과[서: 무과], 총무과[총무과]’ 등에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도록 하였는데, 한글학회의 규정에서는 ‘장밋과, 총뭇과’와 같이 사이시옷을 붙이고 있고 이를 반영한 『우리말 큰사전』에도 ‘장밋과, 총뭇과’를 표제어로 등재하였다. 이는 규정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가 보는 국어사전에 <한글 맞춤법>에 동조하면서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콧방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전에는 ‘코방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콧-방귀[코뺑-/꼴뺑-] ㄱ ㄷ 코로 나오는 숨을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불어 내는 소리.

콧방귀를 쀼다 ㄱ ㄷ …….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콧방귀’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 등에도 ‘콧방귀’를 등재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코방귀’를 등재한 사전도 이외로 많다.

코방귀 ㄱ ㄷ 코로 나오는 숨을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면서 불어 내는

소리.

코방귀 꺾다

(이상 『동아 새국어사전』 3판)

민중서림의 『옛센스 국어사전』(1999)과 민중서관의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e4u 국어사전』, 『흔+ 국어대사전』 등에도 ‘코방귀, 코방귀만 꺾다, 코방귀를 꺾다’ 등을 등재하고 있다. 새로운 <한글 맞춤법>이 나오기 전에 나온 『새 우리말 큰사전』에도 ‘코방귀, 코방귀만 꺾다’로 등재했다.

‘코방귀’를 등재한 사전들은 [코뽕귀] 또는 [꼴뽕귀]로 소리난다고 본 것이고, ‘코방귀’를 등재한 사전은 그냥 [코방귀]로 소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사전류에는 ‘코방귀’로 등재하고, 학생들이 많이 보는 소사전류에는 ‘코방귀’로 등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혼동을 보이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코방아’도 마찬가지다.

코-방아[코뽕-/꼴뽕-] **꺾** 엮어져서 코를 바닥에 부딪치는 짓. (『표준국어대사전』)

이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코방아’로 등재된 것이 『우리말 큰사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코방아’(예문: 코방아를 꺾다)로 등재되어 있다.

코방아 **꺾** 엮어져서 코를 바닥에 부딪치는 짓. (『우리말 큰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옛센스 국어사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흔+ 국어대사전』 등에 ‘코방아’로 등재되어 있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코방귀, 코방아’를 등재했는데, 『우리말 큰사전』과 『동아 새국어사전』(제4판)⁴⁾ 등에는 ‘코방귀, 코방아’를 등재했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을 비롯하여 『흔+ 국어대사전』과 『동아 새국어사전』

』(제3판) 등에는 ‘코방귀, 코방아’를 등재했다.

이와 같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낱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반 독자들은 문자생활에 혼란스러워 할 것은 자명하다.

3.3 표제어에 관련된 것

이희승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61)과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을 찾아보면, 표제어로 올라 있는 ‘목지연(木只椽)’과 ‘모끼연(--椽)’이 있다. 세 사전의 표제어와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모끼-연 ㉸ [건] 지붕의 좌우 마구리에 다는 부연(婦椽)의 서까래.

목지-연(木只椽) ㉸ [건] 박공 머리에 건 짧은 서까래.

(이상 이희승의 『국어대사전』)

②

모끼-연 ㉸ ((건)) 박공지붕, 합각지붕에서 박공널에 직각으로 거는 짧은 서까래. ㉸목계1. ㉸참고부연2. [—椽]

목지-연 ㉸ ((건)) 박공 머리에 건 짧은 서까래. [木只椽]

(이상 『우리말 큰사전』)

③

모끼-연(--椽) ㉸ [건] 박공지붕, 합각지붕에서 박공에 직각으로 거는 짧은 서까래. =목계1(木枅). ㉸참부연1(附椽).

목지-연(木只椽)[-찌-] ㉸ [건] 박공 머리에 건 짧은 서까래.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이와 같이 ‘목지연’과 ‘모끼연’ 두 표제어를 따로 설정하고, 설명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전들에서는 서로 다른 어휘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음, 엠파스,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는 『동아 새국어사전』(제4판)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코방아, 콧방귀’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동아 새국어사전』(제3판)에는 ‘코방아, 코방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자 표기 木只椽(목지연)의 木只(목지)는 ‘모끼’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그래서 木只椽(목지연)은 ‘모끼연’의 차자표기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위 두 표제어는 하나의 어휘이므로, 두 표제어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세영 편 의 『조선어사전』이나 한글학회가 지은 『큰 사전』에서는 ‘모끼연’만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1961년에 만든 이회승의 『국어대사전』과 1992년 발간된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등에 위 두 표제어가 등재되고,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면서 이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명도 거의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에는 ‘목-지연(木只椽)’과 같이 합성어에 붙이는 ‘붙임표’를 잘못 붙인 경우도 있다.

『한국한자어사전』(권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3)의 ‘木只椽’ 항목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④ 【木只椽 목기연】 ㉮ 모끼연. 지붕의 마구리에 다는 부연.

곧 木只椽은 ‘모끼연’의 차자표기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전의 ‘일러두기’에서 “어휘의 독음은 현재 통용되는 한자음에 따르고, 차자어·이두·구결은 고유의 독음에 따랐다.”고 했으므로, “【木只椽 모끼연】 ㉮ 모끼연. 지붕의 마구리에 다는 부연.”으로 써야 할 것이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모끼연’과 ‘목지연’을 등재하지 않았다. 1956년 건축학회 편으로 나온 장기인의 『건축용어집』에는 ‘모끼연’만 등재되어 있고, 이를 ‘일명 모끼서까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의 개정판인 『신편 한국 건축사전』(1998)에는 ‘2784. 모끼연(木只椽): 박공·까치박공 등의 박공널에 직각되게 거는 서까래. 모끼서까래. 목기연’, ‘2785. 목기연(木只椽): 박공 머리에 건 짧은 서까래. 모끼연. 목지연’과 같이 같은 항목을 두 표제어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모끼연, 모끼서까래, 목기연, 목지연’ 등 네 개로 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

출판사, 1992)에도 ‘모끼연, 목지연(木只椽)’을 등재하였다.

국어사전에서 ‘호열자’ 항목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⑤

【콜레라】(Cholera) ㉠ 호열자(虎列刺).

【호열자】{-짜} (虎列刺) ㉠ 醫 토사가 심한 급성 전염병의 한 가지. 콜레라. 怪疾. 虎疫.

(이상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⑥

콜레라(프. 도 Cholera) 【이】 ((의)) …… (고레라. 코레라. 괴질=怪疾⁰. 호역=虎疫. 호열자=虎列刺).

호열자 [-짜] (虎列刺) 【이】 ((의)) = 콜레라(Cholera).

(이상 『큰 사전』)

⑦

콜레라(cholera)[명사] 법정 전염병의 한 가지. 콜레라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소화기 계통의 급성 전염병. 열이 몹시 나며, 구토와 설사가 심함. 쥐통. 호역(虎疫).

호 : 열자(虎列刺)[-짜][명사] ‘콜레라’의 한자음 표기.

(이상 『동아 새국어사전』)

⑧

콜레라 ㉠ ((의)) …… [네. cholera]

호 : 열자 [-짜] ㉠ ((의)) =콜레라. 본디 중국에서 쓰는 ‘홀리에라 [虎列刺]’의 우리 음 ‘호열랄’의 ‘랄(刺)’을 ‘자(刺)’로 잘못 써 오는 말. 중국에서는 ‘랄(刺)’을 ‘랄(辣)’로도 쓴다. [虎列刺]

(이상 『우리말 큰사전』)

⑨

콜레라(cholera) ㉠ [의] 콜레라균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 급성 법정 전염병으로 심한 구토와 설사에 따른 탈수 증상, 근육의 경련 따위를 일으키며 사망률이 높다. =쥐통·호역³(虎疫). (『표준국어대사전』)

호열자(虎列刺)[호 : -짜] ㉠ [건] ‘콜레라’의 음역어. ‘괴질’로 순화.

괴질(怪疾)[괴 : -궤 : -] ㉠ ①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 =괴병¹(怪

病). ①'괴질이 돌다/괴질이 번지다/그는 괴질을 앓다 죽고 말았다. ②'콜레라'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이상의 예에서 '虎列刺(호열자)'라는 표제어는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서 서양의 'cholera'를 받아들여서 쓴 발음이 コレラ [korera / 코레라] 이고, 이를 음역어(音譯語)로 쓴 것이 '虎列刺'이다. 虎列刺은 한국식 한자음이 '호열랄→호열랄'인데, 일부 국어사전에서 '호열자'라고 하거나 '호열자'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刺(랄)을 刺(자)로 잘못 인식하고 국어사전에 올리게 되면서 그 잘못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인의 발음에도 '호열자'라 하게 된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어사전류에까지 버젓이 올라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의 '호열자' 항을 보면, '괴질'로 순화한다고 했다. 그런데 '괴질' 항을 보면, "'콜레라'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속된 말'을 순화어로 정한 것인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한 말로 순화한 말"이라는 '순화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엄연히 외래어 '콜레라'가 등재되어 있는데, 속된 말인 '괴질'로 순화한다는 말은 어딘가 어색하다.

'호열자' 항의 설명에서, "'콜레라'의 한자음 표기"(『동아 새국어사전』), "'콜레라'의 음역어"(『표준국어대사전』)라는 설명도 문제가 있다. 전자는 '콜레라'의 한국한자음 표기가 虎列刺이라는 오해를, 후자는 '콜레라'의 한국한자음 표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말 큰사전』의 '호열자' 항 설명을 보면, "본디 중국에서 쓰는 '홀리예라 [虎列刺]'의 우리 음 '호열랄'의 '랄(刺)'을 '자(刺)'로 잘못 써 오는 말."이라고 했는데, 중국어사전에서 虎列刺이라는 표제어를 찾기가 어렵다. 중국어대사전을 찾으면 '콜레라'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중국어 표기는 虎列拉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설명은 황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는 우리나라 한자사전류에 虎列刺(호열자)가 등재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차라리 『연세 한국어사전』에서와 같이 “호열자(虎列刺)[호: 열짜] (명사) ‘콜레라’의 일본식 용어.”라 하는 것이 적당하나, 이 역시 虎列刺라 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일본 사전에서는 虎列刺(호열랄)로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⑩ コレラ [cholera·虎列刺] ……(講談社, 『日本語 大辭典』)

이상과 같이 虎列刺(호열자)라고 쓰는 잘못은 국어사전만이 아니라 일한사전에도 반영되고 있다. 민중서림의 『민중 옛센스 日韓辭典』에도 “コレラ 【虎列刺】 korera ㉠ [醫] 콜레라. ㉡ 虎列刺로 쓴은 음역;…….”라 하여, 虎列刺로 잘못 쓰고 있다.

3.4 표제어 선정과 설명에 관련되는 것

국어사전에서 ‘손돌이추위’와 ‘머느리서까래’ 항목을 통하여 국어사전의 어휘 설명의 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손돌이추위’와 그와 관련된 표제어와 그 설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손돌이-추위】 ㉠ 음력 시월 스무날께 추운 추위(옛날에 뱃사공 손돌이라는 자가 음력 시월 스무날 통진(通津)·강화(江華) 사이의 바다에서 원통하게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해마다 그 날이면 바람이 몹시 불고 추위가 대단하였다는 일에서 나온 말.)

【손돌이-치위】 ㉠ 「손돌이추위」와 같음.

(이상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②

손돌이-추위 【이】 음력 시월 스무날의 심한 추위. (한글학회의 『큰 사전』)

③

손돌이 추위 ㉮ 음력 시월 스무날께의 심한 추위. *손석풍.⁵⁾

손돌-풍(孫丕風) ㉮ 손석풍(孫石風)

손석-풍(孫石風) ㉮ 【민】 고려 때 어느 해 10월 20일, 사공 손석(孫石)이 임금이 탄 배를 저어 통진(通津)·강화(江華) 사이를 가다가 풍랑에 밀려 매우 곤란을 겪게 되매 그 임금이 다른 뜻이 있다 하여 손석을 억울하게 참살(斬殺)한 일이 있는 뒤 매년 그 날엔 몹시 추워지고 큰 바람이 인다고 전하여 매년 이맘 때 부는 바람을 이름. 손돌풍. *손돌이 추위.

(이상 이회승의 『국어대사전』)

④

손돌-바람 ㉮ 손돌이추위 때 부는 바람. ㉮손돌이바람. 손돌풍. 손석풍. [취. 孫丕-]

손돌이-바람 ㉮ =손돌바람.⁶⁾

손돌이-추위 ㉮ 음력 시월 스무날의 심한 추위.

손돌-풍 ㉮ =손돌바람. [-風]

손석-풍 ㉮ =손돌바람. [孫石風]

(이상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⑤

손돌-바람(孫丕-) ㉮ = 손석풍.

손돌이-바람(孫丕---) ㉮ =손석풍.

손돌이-추위(孫丕---) ㉮ 음력 10월 20일 무렵의 심한 추위. 고려 시대에, 임금이 탄 배의 사공인 손돌이가 풍파를 피하여 가자고 하다가 의심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후로 10월 20일 무렵이면 그 원한으로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진다고 한다. ㉮바람이 매섭고 추우니 손돌이 추위./손돌이 추위를 전후해 세안까지 꼬박 출어시켰고...《이문구, 해벽》/지난번 손돌이 추위도 혹독하더니만.....《박완서, 미망》 ㉮ 손석풍.⁷⁾

손돌-풍(孫丕風) ㉮ =손석풍.

5) * 기호는 '참고되는 말 앞에' 붙인 것임.

6) 줄인말표 ㉮은 '한뜻말(뜻이 같은 말. 같은 말. 동의어)'을 나타내고, '취'는 '취음' (취음은 순수한 토박이말에 한자를 빌려쓴 것인데, 이것은 말필과는 관계가 없다.)을 나타낸다. 기호 =은 '갈음(풀이되어 있는 한뜻말을 보임)'을 나타낸다.

7) 부호 =은 '동의어'를 나타내고, ㉮은 '참고 어휘'를 나타내는 약호다.

손석-풍(孫石風) 囹 음력 10월 20일경에 부는 몹시 매섭고 추운 바람. ≡
손돌바람·손돌이바람·손돌풍. 짝 손돌이추위.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이상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 초창기 국어사전에는 '손돌이추위'만 등재
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국어사전에는 '손돌이추위'는 물론
'손돌바람'과 이를 한자로 나타낸 '손돌풍, 손석풍'까지 등재시키고 있다.
더욱이 민간에서 전하는 얘기를 마치 하나의 어휘로 등재시킨 것은 큰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간에서 전하는 얘기와 역사 기록은 많은 차
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비전승의 이야기를 기정사실화 하여 설명한 것
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역사 기록을 먼저 더듬어보기로 한다.

⑥

承休因獻策曰 待賊半過窄梁……. (『고려사』(권106, 이승휴)8).

窄梁 손돌……窄, 側伯切. 狹也. 窄梁在今江華府南三里<용가 6:59>

孫梁項 高麗時稱窄梁……○卽自江出海之口 石梁 橫亘水中如門闕 中央稍凹
潮之進退水勢甚急 舟舡至此 俟潮滿而過水底 石角嶙峋 波濤洄瀾 舡路極險(『
대동지지』 권2, 경기도, 강화부)

二十日每年有大寒風 謂之孫石風 蓋麗王由海路入江華 舡人孫石進舟入一險
口 麗王疑怒命斬之, 未幾脫險, 至今稱其處曰孫石項, 孫石之被害卽是日, 而怨
氣使然也.(『東國歲時記』, 10月, 月內)

이상의 기록을 볼 때, '손돌'(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와 김포군 대
곶면 송마리 사이의 아주 좁은 물목인 '손돌목'을 이룸.)은 사람 이름이 아

8) 『고려사』에는 지명으로서의 窄梁이 14군데나 나온다. 『한국한자어사전』(권3: 685)
에서는 窄梁을 '착량'이라 읽고 "강이나 바다의 폭이 좁은 여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래 窄梁은 '손돌'의 차자표기이다. 본래는 일반적인 어휘로 쓰이던 것인
데, 고유명사인 지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타당하지
만, 예문에 나온 窄梁은 강화도의 窄梁으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독음이나 설명
이 모두 잘못되었다.

나라 고유어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이 고유어 지명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狹梁(착량)으로 표기하였다가, 孫梁(손량)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고유어 '목'이 덧붙으면서 孫梁項(손량항)으로 표기하게 되고, 다시 孫石項(손석항)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狹梁과 孫梁은 『용비어천가』의 주해와 같이 '손돌'의 한자차용표기이고, 孫梁項과 孫石項은 '손돌목'의 한자차용표기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손돌'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곧 '손돌' 또는 '손돌목' 일대의 추위가 유난히 거센 데서 '손돌이추위' 혹은 '손돌이바람'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고, 이때의 '손돌'은 원래 지명이었는데 뱃사공에 빗대기 시작하면서 사람 이름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록한 것이 『동국세시기』이고, 나중에 이것이 국어사전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자어사전』에서도 孫石風과 孫石項을 분명히 차자표기라 하고, 각각 '손돌바람'과 '손돌목'으로 읽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위 국어사전 중 그나마 『우리말 큰사전』에서 '손돌바람' 설명에서 孫琺를 취음표기라 했다. 그런데 '손석풍(孫石風)'과 '손돌풍(孫琺風)'을 표제어로 올리는 오류를 범했다. 다만 '손돌바람'을 대표 표제어로 선정했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손석풍(孫石風)'을 대표 표제어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孫石風을 '손돌바람'의 취음표기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외의 대부분 국어사전은 이희승의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거의 그대로 살려 쓰는 오류를 범했다.

⑦

【孫石風 손돌바람】 罔 손돌바람. 二十日每年有大寒風 謂之孫石風 蓋麗王由海路入江華 舡人孫石進舟入一險口 麗王疑怒命斬之, 未幾脫險, 至今稱其處曰孫石項, 孫石之被害卽是日, 而怨氣使然也. 《東國歲時記》(10月, 月內)

【孫石項 손돌목】 罔 손돌목. …….

(이상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의 『한국한자어사전』 권1)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어휘도 등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손돌바람, 손돌풍, 손돌이바람, 손돌이추위, 손석풍’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한자표기는 없고, ‘손돌풍’은 ‘손돌바람’, ‘손석풍’은 ‘손돌이바람’과 같거나 찾아보라고 되어 있다.

남북한 사전 모두 이들 어휘의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다음은 ‘부연’과 ‘머느리서까래’에 관한 설명을 보도록 하자.

⑧ 【부:연】(婦椽) ㉞ 서까래 끝에 엮어서 공중으로 높이 솟게 만든 서까래. (『조선어사전』)

⑨ 부연(附椽·婦椽) 【이】 ((견))……. (『큰 사전』)

⑩

머느리-서까래 ㉞ 【견】 부연(附椽).

부:연¹(婦椽·附椽) ㉞ 【견】 장연(長椽) 끝에 덧 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처마를 위로 들리게 하여 모양이 나게 함. 사연(師椽).

(이상 『국어대사전』)

⑪

머느리-서까래 ㉞ ((견)) =부연².

부:연² ㉞ …… ㉞머느리서까래. 사연². [婦椽. 附椽]

(이상 『우리말 큰사전』)

⑫

머느리-서까래 ㉞ [견] =부연¹(附椽).

부연¹(附椽/婦椽)[부:-] ㉞ [견] …… =머느리서까래·사연⁷(師椽). ㉞모까연.

(이상 『우리말 큰사전』)

이상의 예를 볼 때, 『조선어사전』과 『큰 사전』에서 표제어 ‘부연’으로 등재되었던 것이 이희승 『국어대사전』에서 ‘머느리서까래’가 등장한 뒤에

요즘 국어사전에 이르기까지 ‘부연’과 ‘머느리서까래’를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머느리서까래’가 순 우리말이라면 기본 표제어로 채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머느리서까래’가 고유어이고, 이를 차자표기로 나타낸 것이 婦椽과 附椽일까 하는 것이다.

1956년에 나온 『건축용어집』에는 ‘부연(婦椽·附椽), 부연개판, 부연착고, 부연처마’만 등재되어 있고, 1998년에 나온 『신편 한국건축사전』에는 ‘부연(付椽·婦椽·附椽), 부연간판, 부연개판, 부연누리개, 부연누리개보판, 부연뱃바다, 부연부리초, 부연착고, 부연착고판, 부연처마, 부연초, 부연초장, 부연평고대’ 등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의례류에도 付椽·婦椽·附椽의 표기가 모두 나타난다.

앞의 사전들에서는 婦椽과 附椽을 ‘머느리서까래’의 취음표기나 속음표기로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한자어사전』에서도 婦椽과 附椽을 ‘머느리서까래’의 차자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까래’는 ‘셋가래(椽 셋가래<동해, 상:35>)=헛가래(헛가래/椽子<박해, 하:46>)>혁가래(檣椽 檣 혁가래<물보, 제택>)/헛가래(<청언-원 16>)’ 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고유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머느리서까래’도 고유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일찍부터 付椽과 婦椽, 附椽만 쓰였을 뿐 ‘머느리서까래’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 『조선어사전』과 『큰 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회승의 『국어대사전』(1961)에서부터 ‘머느리서까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일찍부터 있어온 것이라면 婦椽과 附椽은 이의 차자표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국어사전류에서는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일찍부터 쓰여온 한국한자이다. 婦椽 古之匠人 誤斲屋椽而短之 其婦教使附椽 故仍爲附椽曰婦椽<行用吏文>. 그러므로 ‘머느리서까래’는 婦椽이나 附椽은 번역한 어휘가 아닌가 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부연(附椽·婦椽): (다듬은 말로) 덧서까래’라 하였다.

다음 예에서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⑬

머느리-서까래 {명} 긴 서까래에 덧붙여 높이 솟게 만든 서까래. 부연(附椽).

부연 초가리(婦椽-) {명} 머느리서까래[婦椽] 끝에 붙이는 기와. *초가리.
(이상 『새로운 우리말분류대사전』)

⑭

머느리서까래 서까래 끝에 물리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부연누르개 부연의 뒷목을 눌러 박은 누르개.

부연뱃바닥초 부연의 뱃바닥에 그린 단청.

부연차꼬 부연의 사이를 막아 낀 널빤지.

부연처마 부연을 단 처마.

부연추녀 부연을 달아서 쭉 내밀게 한 추녀.

(이상 『새로 다듬은 우리말갈래사전』)

⑬에서는 ‘머느리서까래’를 표제어로 올렸는데, 그에 대응하는 한자 附椽과 ‘부연 초가리’의 ‘부연’에 대응하는 한자는 婦椽을 썼다는 것이고, 설명에서 ‘머느리서까래[婦椽]’라고 하여 앞의 ‘머느리서까래’에 제시한 한자와 비교할 때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⑭를 보면, ‘머느리서까래’를 표제어로 제시했는데 그에 대응하는 한자는 없다. 더욱이 표제어로 제시된 ‘부연누르개, 부연뱃바닥초, 부연차꼬, 부연처마, 부연추녀’ 등의 표제어를 고려하면 ‘부연’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설명하는 글에서 ‘부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서도, 이 사전에서 ‘부연’은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이 사전도 표제어 선정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머느리서까래’나 ‘부연’과 관련된 어휘를 전혀 등재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 다음이다. 대부분의 국어사전에 는 ‘부연’의 한자 표기로 附椽과 婦椽을 등재하고 있는데, 『훈’ 국어대사전』에서는 附椽만 옳고 婦椽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의궤류에서 附椽

과 婦椽, 付椽은 일반적으로 쓰였다. 더욱이 이들이 차자표기라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동일 저자의 『새로운 우리 말분류대사전』에는 婦椽도 표제어 ‘부연’에 해당하는 한자로 썼다. 그러므로 다음 설명을 믿기 어렵다.

부연¹(附椽)[부:-(명)(建) 들연 끝에 덧엮은 짚고 네모난 서까래. 머느리 서까래. <참고>‘附椽’을 ‘婦椽’으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附’는 긴소리 이고, ‘婦’는 짧은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附椽’을 ‘머느리서까래’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이름이므로 별문제가 없다. (남영신의 『훈’ 국어대사전』)

3.5 외래어 표기와 관련된 것

외래어 표기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이 ‘문교시 고시 제85-11호(1986년 1월 7일)’로 고시된 이후 대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비교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①

커트(cut) ㉠ ①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 내는 일. 또는 진행되던 일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일. ②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일. 또는 그 머리 모양. 『올여름에는 커트 머리가 유행할 것이다.』 ③ 『운』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가 바라던 공이 아니거나 치기 거부할 때 배트를 살짝 대어 파울 볼로 처리하는 일. ④ 『운』 야구에서, 한 야수가 던진 공이 목적인 야수에게 도달하기 전에 다른 야수가 그 공을 잡아 버리는 일. ⑤ 『운』 농구 따위에서,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는 일. ⑥ 『운』 탁구나 테니스에서, 라켓을 비스듬히 한 채로 깎아 쳐서 공에 회전력을 주는 일.

컷(cut) I. ㉠ ① 『연』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장면’으로 순화. ㄴ. ② 『연』 대본이나 촬영한 필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일. ③ 『출』 인쇄물에 넣는 삽화(插畵). ‘삽화’로 순화. II. ㉠ 『연』 영화 촬영에서, 촬영을 멈추거나 멈추라는 뜻으로 하는 말.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외국어 'cut[cut]'의 경우 한글로 표기할 때 혼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고,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했고, '제3장 표기 세칙'의 '제1절 영어의 표기'를 보면, "제1항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고 했기 때문에, 전자에 준해야 하는지 후자에 준해야 하는지 혼동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해설의 '제5항' 설명을 보면, "'cut'은 '컷'이라고도 하고, '커트'라고도 하는데, 인쇄의 도판일 때는 '컷'이라고 하고, 정구나 탁구공을 깎아서 치는 것은 '커트'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 용례집(일반용어)』(국어연구소, 1988)에는 "cut 커트 [운동], 농구, 야구, 탁구 // cut 컷 [연영], [출판]"이라고 했다. 이 내용만 볼 때는 미용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일을 '컷'이라고 써야 할지 '커트'라고 써야 할지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를 확인해 보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 『훈' 국어대사전』 등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일을 '커트'라 했으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중서관의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과 두산동아의 『동아 새국어사전』, 『엡센스 국어사전』 등에는 '컷'이라 했다.

컷(cut) Ⅰ. ㉠ 1.(일부를) 자르는 일. 깎아 내는 일. 2.(출판물에서) 작은 삽화나 사진. 3.(영화에서) ㉠필요에 따라 필름을 잘라 내는 일, 또는 그 필름. ㉡촬영할 때 카메라의 회전을 멈추어 끊는 일. ㉢커팅(cutting). (참고) 커트(cut). Ⅱ ㉣ 영화 촬영에서, 촬영을 멈추거나 멈추라는 뜻으로 하는 말.

커트(cut) ㉤한타 (테니스·탁구·골프 등에서) 공을 비스듬히 아래로 깎는 듯이 침, 또는 그러한 기법. 커팅. (참고)컷(cut).

(이상 『동아 새국어사전』)

다음의 '워크'와 '아웃'의 겨우도 사전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②

워크-아웃(미. workout) : 이회승의 『국어대사전』

위 : 크-아우트(미. workout) : 『우리말 큰사전』

위크아웃(workout) : 『표준국어대사전』

위 : 크아웃(workout) : 『동아 새국어사전』

<외래어 표기법> 제7항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표기 세칙과 제1항 “3.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는 표기 세칙, 제1항 “1.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표기 세칙에 따라, 영어의 workout[wó : rkòut]은 ‘위크아웃’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의 ‘위크아웃’은 바뀐 <외래어표기법>이 적용되기 전 것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말 큰사전』의 경우,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세칙과 짧은 모음 다음의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세칙,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

③

위 : 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 『우리말 큰사전』, 『훈+ 국어대사전』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 『표준국어대사전』

위 : 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 : 『동아 새국어사전』, 『엡센스 국어사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 『연세 한국어사전』

영어의 word processor[wó : rd pròusesə:r]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제10항 “2.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세칙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네 개의 사전 표기는 모든 정당한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일반 독자는 혼동할 수밖에 없다.

④

워:크-쇼프(영. workshop) : 『우리말 큰사전』

워크숍(workshop) : 『표준국어대사전』,

워:크-숍(workshop) : 『동아 새국어사전』, 『엡센스 국어사전』

워크-숍(workshop) : 『연세 한국어사전』, 『훈+ 국어대사전』

워크샵(workshop)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영어 workshop[wó : rkʃòp]은 ‘워크숍’으로 적어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국어사전, 그것도 국어국문학회에서 감수했다고 하는 유명 출판사의 국어 사전에 ‘워크샵’으로 표기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말 큰사전』의 외래어 표기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

3.6 차자표기 및 취음표기에 관한 것

국어사전에서 차자표기는 대개 취음표기만을 채택하여 ‘취음’ 또는 ‘취’라고 쓰거나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우리말 큰사전』에서 沙鉢은 ‘사발’의 취음표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회승의 『국어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에서는 취음표기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곧 한자어로 인식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① 사발 沙鉢 ㉠사기로 만든 밥그릇이나 국그릇. 아래는 좁고 위는 넓으며 굽이 있다. (H)~에 담은 밥. ~에 담은 국. ② ‘㉠’의 썸 단위. (H)국 한 ~. 물 두 ~. 밥 세 ~. ㉡이 말을 단위로 쓰는 이름씨 아래에 쓰이어 ‘약간의 사발’을 나타낸다. (H)밥 ~이나 있다고... [취. 沙鉢] (『우리말 큰사전』)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한글학회의 『큰 사전』에서는 ‘사발(沙鉢), 수라(水刺)와 같이 고유어의 차자표기를 고유어에 쓰이는 한자표기인 것처럼 썼다. 곧 차자표기를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큰 사전』의 경

우 ‘대접…(취음: 大樑)’과 같이 경우에 따라 취음 표기도 다뤘다.

이회승의 『국어대사전』에서부터 취음 표기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표제어 다음의 한자에 ‘x’ 기호를 사용하여 취음 표시를 했다. 그래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② 생각¹(¹生覺 · 省覺) ㉸ ①…….9)

그런데 정작 취음표기인 水刺¹⁰, 沙鉢 등에는 취음 표시를 하지 않았다.

③

사발(沙鉢) ㉸ …….

수라 : ¹(水刺) ㉸ <궁중>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

(이상 이회승,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수라’에는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고, ‘사발’에 대응하는 취음표기는 沙鉢로 처리했다.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수라’에는 대응하는 한자는 없는 것으로 처리했고, ‘사발’에 대응하는 한자는 沙鉢로 처리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수라’에 대응하는 한자는 水刺로 처리했으나, 한자의 원래 음과 한글 표기로 제시되는 음이 다른 경우에는 한자 오른쪽에 ‘▽’ 기호로 표시했기 때문에 ‘水刺▽’로 표시하였다. ‘사발’에 대응하는 한자는 沙鉢로 처리했다. 『새로 다듬은 우리말갈래사전』(2002)에서는 ‘사발’이 등재되지 않고 ‘국사발’과 ‘밥사발’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대응 한자는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우리말분류대사전』(남영신)에서는 ‘목사발(-沙鉢)’을 등재하고, ‘사발’에 대응하는 한자를

9) 『우리말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생각’에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 것으로 했다. 곧 취음 표기가 없는 고유어로 처리했다.

10) ‘수라’의 차자표기는 水刺가 아니라 水刺이기 때문에 이전에 水刺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沙鉢’로 처리했다. 『한국한자어사전』(권3:100)에서도 ‘沙鉢’은 ‘사발’의 한자어로 처리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대접, 대야, 사발, 수라’ 등에 모두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④ **대접**¹⁾ 【이】 승능이나, 혹은 국물을 담은 그릇. 위는 넓적하고 아래는 편평하고 운두가 낮음.(취음: 大楪) (『큰 사전』)

위와 같이 『큰 사전』에서는 ‘대접’의 취음 표기가 ‘大楪’이라 밝혔다. 『조선어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새로운 우리말분류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새로 다듬은 우리말갈래사전』 등에서는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회승 『국어대사전』에서도 ‘대접(† 大楪) ㄷㄹㅈㅅ…….’과 같이 취음 표기의 하나로 다루었다.¹¹⁾ 『한국한자어사전』(권1:1060)에서는 ‘【大楪 대접】 ㄷㄹㅈㅅ 대접. 그릇의 한 가지이다.…….’, ‘【大楪 대접】 ㄷㄹㅈㅅ 대접. 그릇의 한 가지이다.…….’와 같이 大楪과 大楪은 모두 ‘대접(그릇의 한 가지)의 차자어로 처리했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이회승의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표제어로 처리했던 ‘목기연(木只椽)’, ‘목지연(木只椽)’에 보이는 木只椽도 ‘모끼연’ 또는 ‘모끼서까래’ 정도의 차자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한자어로 처리한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차자표기 처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이 차자표기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7 발음 정보 및 장음, 복합어의 표시

보통의 국어사전에서 발음 정보는 부호 [] 나 []를 써서 그 안에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사전에 따라서 장음 표시를 표제어에 한

11) 『국어대사전』에서 기호 †’은 속음 표시로, ‘표제어 다음의 한자에’ 표시했다.

경우가 있고, 발음 정보 표시 부호에 한 경우도 있다. 사실 발음은 실제 표기에서 하지 않으므로 전자와 같이 표제어에 장음 표시를 하면 국어사전의 각종 부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조선어사전』과 『큰 사전』, 『우리말 큰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등에서는 ‘가:망:(可望)¹²⁾, ‘가망다’, ‘가:망다¹³⁾, ‘팀:파울’ 등과 같이 장음 표시를 표제어에 머리줄(〱)을 질러 표시하거나 그 글자의 오른쪽에 ‘:나’ :’ 부호를 써서 장음을 표시를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발음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에 넣었고, 그 안에 장음 정보도 넣었다. ‘눈-보라:눈--’, ‘곱대:곱-따’ 등.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에 합성어 표시인 붙임줄(-)과 띄어 써야 할 단어인데 붙여 써도 될 것은 ‘팀~파울’과 같이 붙임 허용 표시만 했다. 특히 이 사전에서는 “외래어와 외래어가 포함된 복합어에는 발음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 정보 표시는 물론 장음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장음 표시이다. 실제 대부분의 발화에서는 긴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사전에서는 일일이 장음 표시를 하고 있다. 표준어를 중심 표제어로 삼은 국어사전이므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장음 표시를 달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원칙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긴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둘째 음절 이하에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같은 표제어인데도 장음 표시가 다른 것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12) 『조선어사전』과 『큰 사전』,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등은 ‘가:망:(可望)’, ‘엇셈:’, ‘엇짚’, ‘부회장(副會長)’, ‘검:-새:다’, ‘원:시:-안:’ 등과 같이 둘째 음절 이하에도 장음 표시를 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만 긴소리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첫눈’과 같은 둘째 음절이하에서는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았다.

13) 『조선어사전』에서 ‘가망다’는 장음 표시가 없다.

①

첫-눈 : [初雪] : 『큰 사전』,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흔' 국어대사전』

첫-눈[初雪] : 『연세 한국어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옛센스 국어사전』

②

고 : 전 : (古典) : 『조선어사전』, 『큰 사전』,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고 : 전(古典) : 『연세 한국어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옛센스 국어사전』

③

가 : 정(假定) : 『큰 사전』,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가 : 정 : (假定) : 『조선어사전』, 『우리말 큰사전』

④

절제 : -사 : (節制使) : 『조선어사전』, 『우리말 큰사전』

절제 : -사(節制使) : 『국어대사전』

절제-사(節制使) : 『큰 사전』, 『동아 새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옛센스 국어사전』

3.8 의존명사와 접미사 처리에 관한 것.

①

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이 날 강릉 김씨 문중을 대표해서 '강릉 김씨의 고향'을 발표한 학생은 김인수였다.

예문 ①에 쓰인 '씨'와 관련해서 국어사전마다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 '씨'는 의존명사로 처리하여 띄어 쓰고,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말'인 '씨'는 접미사로 처리하여 붙여 쓰고 있다. 『동아 새국어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도 이와 같다.

②

씨⁷(氏) ㅅ씨 ((주로 문집이나 비문 따위의 문어에 쓰여))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 ㅅ씨는 김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ㅅ씨(성년) ㅅ씨(성년)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읽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ㅅ김 씨/길동 씨/홍길동 씨/희빈 장 씨/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는데. ㅅㅅ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주로 글에서 쓰는데, 앞에서 성명을 이미 밝힌 경우에 쓸 수 있다. ㅅ씨는 문단의 권위자이다. ㉔ 씨⁹.

-씨⁹(氏)ㅅ씨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ㅅ김씨/이씨/박씨 부인/최씨 문중/의유당 김씨/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㉔ 씨⁷.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이 설명에 의하면, '성명 또는 이름 뒤에 붙여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호칭어'의 '씨'는 의존명사이므로 '홍길동 씨, 김복남 씨, 영숙 씨'와 같이 쓴다는 것이다. 물론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그러나 『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 큰사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등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씨'를 접미사로 처리하여 붙여 쓰고 있다.

③

-씨(氏) ㅅ 사람의 성(姓) 또는 이름 밑에 붙이어 존대의 뜻을 표시하는 말. ★김-/박-. (『국어대사전』)

-씨² ㅅ 성 또는 이름에 붙어 '높임'의 뜻을 나타냄. (ㄷ)김~. 박~ 문중.

홍 길동~. (『우리말 큰사전』)

-씨²(氏) ㉞(氏) 사람의 성(姓)이나 이름 밑에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김영숙~.(『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이를 토대로 한다면 ‘홍길동씨, 김영숙씨’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학생들이 보는 국어사전에 이런 혼란을 보이면 당연히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홍길동 님’과 같이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님’에 대해서도 사전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

④

님¹ ㉞(氏) ① ((직위나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㉞홍길동 님/길동 님/홍 님. ㉞님⁴.

-님⁴ ㉞(氏) ①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㉞사장님/총장님. ②…….

(이상 『표준국어대사전』)

⑤

-님 ㉞(氏) 남의 이름이나 어떠한 명사 밑에 붙여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시경님/국장님/선생님/달님/해님. (이희승 『국어대사전』)

-님 ㉞(氏) ①사람을 일컫는 말에 붙어 높임의 뜻을 나타냄. (비)주시경님. 김님. 선생님. 총장님. 따님. 부모님. 손님. ②……. (『우리말 큰사전』)

-님 ㉞(氏) ①남의 이름이나 호칭, 또는 다른 명사 뒤에 붙여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 ㉞한용운님/사장님/선생님. ②……. (『동아 새국어사전』)

‘만큼’도 사전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⑥

만큼 ㉞(麥) ①임자씨나 풀이씨의 매김풀 ‘-근’, ‘-을’ 아래에 쓰이어, 그 ‘정도나 한도’의 뜻을 나타낸다. ‘하다’ 이외의 말이 널리 뒤따라 쓰이는 점이 ‘만’과 차이가 있다. (비)비가 겨우 먼지나 적실 ~ 왔다. 먹을 ~ 먹었다. 주

먹 ~(씩) 한 감자. 누구는 너 ~ 못해서. 그 ~ 했으면 장하지. **한**만치. **한**고 **만**6. ②풀이씨의 매김풀 ‘-ㄴ’, ‘-는’, ‘-은’ 아래에 쓰이어, ‘근거, 까닭’을 나타낸다. (H)그가 아는 ~ 가르쳐 주겠지. 일이 좋은 ~ 비싸겠다. **한**만치. (『우리말 큰사전』)

⑦

만큼 **한** 「-ㄴ」이나 「-을」 밑에 쓰이어 그 말과 거의 같은 수량이나 정도, 또는 「실컷」의 뜻을 나타내는 말. ★싫증이 날 — 먹다/정신을 잃을 — 술을 마시다. --**한**체언 밑에 붙어 그 말과 거의 같은 한도·수량을 나타내는 말. ★명주는 무명— 질기지 못하다./누구나 너—은 할 수 있다. (『국어대사전』)

만큼 I **한**……. II **한** 체언 뒤에 붙어, ‘정도가 거의 비슷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만치. 『나도 너~ 달릴 수 있다./이~ 해 놓았으니 너에게 사랑할 만하지. (『동아 새국어사전』)

만큼 II **한** ①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만치.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주는 만큼 받아 오다/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선창 거리가 북적거리는 만큼, 개항지 목포를 찾아드는 이주민들도 날마다 불어났다.《문순태, 타오르는 강》/바람이 몹시 휘몰아치고 있었으므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대기는 차가웠다.《김용성, 리빠똥 장군》 ②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만치.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그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만큼 모두들 방심한 태도로 있었다.《이기영, 봄》 III **한**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만치.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만큼’이 매인이름씨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명사 뒤에 붙은 ‘너 만큼, 그 만큼’ 등은 너무나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사전에서는 조사로도 인정했기 때문에 ‘너만큼, 그만큼’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4. 마무리

이 글은 글쓰기 관련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어사전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개의 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혼란상이나 오류 등을 몇 가지로 살펴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에 대한 지식이나 국어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주로 참고하는 국어사전의 표제어나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거나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나온 대사전에서조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어에 대한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 만든 국어사전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표제어 선정이나 표제어 설명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국어사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과 ‘네이버’, ‘애플스’, ‘네이트’ 등에서는 『동아 새국어사전』이, 야후에서는 『e4u 국어사전』이, 드림위즈에서는 『연세 한국어사전』이 서비스되고 있다. 『동아 새국어사전』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일을 뜻하는 외래어로 ‘컷’을 등재했지만, 『e4u 국어사전』과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컷트’가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님’은 ‘홍길동 님/길동 님/홍 님’과 같이 띄어 써야 하는 의존명사로 처리했지만,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전자사전에는 ‘주시경님’과 같이 남의 이름 뒤에 쓰여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님’을 접미사로 처리하여 붙여

쓰고 있다. ‘콜레라’의 일본식 표기인 虎列刺(실은 虎列刺의 잘못)의 설명을 보면, 『동아 새국어사전』은 “호열자(虎列刺): ‘콜레라’의 한자음 표기”, 『e4u 국어사전』은 “호열자(虎列刺): =콜레라. <참고> 본디 중국에서 쓰는 ‘홀리에라(虎列刺)’의 우리 음 ‘호열랄’의 ‘랄(刺)’을 ‘자(刺)’로 잘못 써 오는 말. 중국에서는 ‘랄(刺)’을 ‘랄(辣)’로도 쓴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호열자(虎列刺): ‘콜레라’의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서로 달리 되어 있다.

종이로 출판된 사전은 물론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자사전의 오류에 대한 것은 장음 표시에서부터 표제어 선정, 표제어 설명, 차자표기 문제, 품사 문제 등 국어사전 전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어사전 편찬 역사는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도 표기법이 크게 두 번 정도 바뀌는 곡절도 거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발간되는 국어사전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국어연구원(현재는 국립국어원)이 설치된 지도 15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방대한 사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리 믿을만한 사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금세기에라도 믿을만한 국어사전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1992~199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1~Ⅳ)』.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남영신(1994), 『새로운 우리말분류대사전』, 성안당.

남영신(1998), 『흔' 국어사전』, 성안당.

남영신(2002), 『흔' 국어대사전』, 성안당.

- 두산동아(2001), 『프라임 영한사전』(제3판).
두산동아(2001), 『동아 새국어사전』(제3판).
두산동아(2003), 『동아 새국어사전』(제4판).
민중서관(2001),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림(1999),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박용수(2002), 『새로 다듬은 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도서출판 월인.
신기철·신용철(1983),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개발원(2000),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희승(1961, 1982, 1994, 1998), 『국어대사전』, 민중서관(2판 이후 민중서림).
정재도(1999, 2001), 『국어 사전 바로잡기』, 한글학회.
한글학회(1947~1957), 『큰 사전』(권1~권6), 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